



노틸러스호성 팀장급 직원 51명이 종교를 초월해 지난 6월 20-21일 강화 전등사에서 '리더십 강화 수련회'를 열고 참선을 통한 마음 다스리기를 체험하고 있다.

“참선하며 리더십 배웠어요”

‘노틸러스 호성’ 간부 51명 전등사 산사체험 최대표 “마음 낮추는 최고 방법” 제안 참가자 “삶의 활력회복·성찰의 시간”

작용했다. 그러나 “자신의 한계와 고정관념을 뛰어 넘은 값진 기회를 가져보자는” 최 대표의 뜻은 팀장들의 마음을 움직여 이 같은 행사가 마련됐다. 또 지난 4월부터 팀장급 직원에게 적용돼온 부하 직원들의 상향 평가를 격려하게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도 필요했다.

반응은 좋았다. 천주교 신자인 기획팀 변해현(35) 팀장은 “3시간 이상 진행된 참선을 통해 직원들뿐만 아니라 그간 지나치기 쉬웠던 회사 생활도 되돌아볼 수 있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신선한 활력을 얻은 것은 물론 진지한 자기 성찰의 시간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사찰에서 참선 프로그램

을 마치고 각 리더들은 자기가 느꼈던 ‘다짐문’도 작성했다. 각 팀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앞으로 노틸러스호성은 1년 동안 팀장급 직원 개개인의 역량에 요구되는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불교 서적을 추천하는 등 꾸준한 사후관리에 들어갈 계획이다.

최영자 대표는 “경영자의 리더십은 기업 발전을 좌우하는 것으로, 조직원들에게 자발성과 의욕을 불어 넣고 인재들을 양성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기를 기대한다”며 “마음자리를 찾는 불교의 참선이야말로 리더십 강화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참선을 통해 리더십을 강화한다.’ 6월 20-21일, 금강자중화하기 전문업체인 노틸러스호성(대표이사 최영인) 팀장급 직원 51명이 강화 전등사에서 일상과 종교를 떠나 이틀간의 산사체험을 했다.

노틸러스호성이 이번 수련회에서 내건 슬로건은 ‘참선을 통한 리더십 강화’ 발우공양, 스님 법문, 새벽스님 산행, 참선 등 일부 종교가 다른 직원에게

는 분명한 프로그램이었다. 하지만 합장 인사에서부터 새벽 산사의 법고소리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노틸러스호성이 리더십 교육 장소를 사찰로 선택한 이유는 마음을 낮추는 방법에는 ‘참선’만한 것이 없다는 최영인 대표의 제안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실 행사를 기획하면서 팀장들의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대부분의 팀장이 종교가 없거나 타종교인이라는 점이 걸림돌로



“신도들이 편히 찾는 도량만들자”

부안 염창사 신도회 하인호 회장, 최기철 부회장

마당 한켠에 자리잡고 있는 포크레인과 여가지를 놓인 공사 자재들. 한창 불사가 진행 중인 이곳은 전북 부안의 염창사다. 열 평 남짓한 아담한 법당과 컨테이너가 현재 염창사 건물의 전부지만, 이곳에서는 지역 중심도량을 거둬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고 있다.

5년 전 주지 원공스님이 ‘천생 절터’로 소문난 이곳에 법당을 세울 때만 해도 절을 찾는 신도들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다. 또 마을에 절이 없었던 탓에 신도들은 기초적인 교리는 물론 사찰예절에도 서툴렀다. 하지만 원공 스님은 법회 때 마다 신도들에게 불교 기초교리를 가르치고 초파일이면 연등도 함께 만들며 ‘스님과 신도’라는 수직적 관계를 넘어 가족처럼 지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렇게 한 명 두 명 늘어나기 시작한 신도들은 이제 법당에 다 모여 앉기도 힘들 정도가 됐다.

때문에 염창사 신도들이 편히 찾을 수 있는 도량으로 만들어보자고 하인호(55) 신

도회장과 최기철(50) 부회장이 나섰다. 이들은 불사 현장을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와 현장을 살피는 한편, 포교활동에도 누구보다 열심히 다녔다.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하 회장은 배달을 나가서도 염창사 전화번호를 건네며 “법회에 꼭 나와보라”는 말을 잊지 않는다. 지역 인사들이 자주 찾는 최 부회장의 식당도 사찰출보에 있어 빠질 수 없는 곳이다. 식당이 절에서 가까운 덕분에 식사를 마친 손님들을 절로 안내하기도 한다.

하 회장과 최 부회장의 이러한 ‘홍보전략’이 통하는 이유는 두 사람 모두 그동안 독자 노선과 불우이웃돕기에 앞장 선 공로로 군이나 복지위원회의 감사패와 표창장을 셀 수 없이 받은 성실한 ‘지역일꾼’이기 때문이다.

하 회장은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절을 찾아 편하게 수행활동을 할 수 있고 ‘지역 불자들이 함께 불교발전을 위해 힘쓰는 중심거점’이 되도록 신도를 모두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부안=여수경기자

하루에도 몇차례씩 불사현장 찾거

자영 주유소·식당이 ‘절 홍보거점’



부안염창사신도회 하인호회장(우측)과최기철 부회장이 불사현장을 설명하고 있다.



추천의 말

원공스님 염창사 주지

불사가 한창인 염창사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사찰을 찾는 두 분의 거사가 있습니다. 신도회 하인호 회장님과 최기철 부회장은 법당 건립에 쓰일 자재

사찰불사 내일처럼 돌봐

하나 고르는 일부러 공사 진행상황을 살피는 일까지 염창사의 불사를 내 일같이 생각하고 챙기십니다. 이 두 분의 노력 덕분에 염창사는 불사를 원만히 회향하고 지역 불자들을 위한 도량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조계사 중창 900일 기도법회

‘불사원만성취’ 100일 릴레이 발원문 낭독

조계사는 6월 21일 중창불사 900일 맞이 기도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도법회는 노전 능허스님의 축원, 합창단의 찬불가, 뮤지컬 중무실장의 경과보고, 조계사 중창불사에 동참한 6천여명의 모연문을 부처님 전에 올리는 정대의식 순으로 거행했다.

조계사는 앞으로 100일동안 대웅전에서 불사 원만성취 108배와 100명 릴레이 발원문 낭독, 공사현장 견학프로그램

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조계사 대웅전은 지붕의 기와가 완전히 해체된 상태며, 1일부터 목 부재 해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조계사는 900일 맞이 기도법회 기념으로 대웅전 앞마당에서는 탁본 체험 행사와 대웅전 탱화 위에 장엄돼 있던 용반(화반양식) 등의 전시회와 경과보고 사진전을 개최했다.

김원우기자



백령도 해수관음상 ‘우뚝’ 남북평화·효행사상 선양

백령도에 해수관음상이 세워진다.

백령도 연화정사(주지 지명)는 12일 오후 2시 관음대에서 해수관음상(사진) 점안법회를 개최한다.

총높이 8.5m의 해수관음입상 건립은 남북평화와 효행사상 선양을 위해 건립되고 있는 연화정사의 첫 불사이다. 이날 점안법회 2부 순서로는 신도회 임명장 수여식, 기념식수에 이어 성지스님, 불자기수 김홍국씨, 중앙대 국악과 판소리 공연 등이 펼쳐진다.

지명스님은 “내년 4월부터 효행수련원과 세계발우전시관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02) 549-8592 김원우 기자

호국영령·선망조상 천도 육군 열쇠부대 광복통일사

육군 열쇠부대 광복통일사(사지도법사 강승욱)에서 6월 24일 호국영령과 선망조상·부모를 위한 천도대법회가 개최됐다.

법륜종 총무원장 장법스님, 부대장 김갑현 소장 등 1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법회에서 법륜종 종정 장가스님(군불교진흥회 회장)은 “무상의 이치를 깨달았을 진대 슬픔이나 원망이나 착할 것이 무엇이라,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증생이란 것도 없고 목숨이란 것도 허깨비니 놓고 죽었다 하는 꿈속 일에 어찌 착할 것이라”라고 법문했다. 남동우 기자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출토유물 등 보물지정

문화재청은 최근 월정사 팔각구층석탑에서 발견된 유물 9종 12점(일괄과) 송광사 티베트문 법지, 불갑사 목조삼세불좌상을 각각 보물 1375호, 1376호, 1377호로 지정했다. 또 쌍계사 목조삼세불좌상 및 사보살입상, 축서사 괘불탱 등 2건을 보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관보에 예고했다. 1970년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해체과정에서 발견된 은제도금 여래입상과 수정사리병, 동경등은 고려초기 금속공예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유물로 평가된다. 권형진 기자

도솔암 극락전 낙성법회

아미타불 개금·탱화집안

고창 선운사 도솔암(주지 지명) 극락전 중창불사 낙성과 아미타불 개금 및 아미타불 후불탱화 점안대법회(사진)가 6월 21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 이강수 고창군수 등 1천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개최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법어를 통해 “해탈은 부족함이 없는 행복의 경지”라면서 이는 모두 내가 만들고 바로 내 마음 안에 있다”고 강조했다.

주지 지명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지장



기도 도량으로 힘찬 걸음을 디뎠다”고 말하고 “사세화장을 통해 수행도량으로 면모를 더욱 갖추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운사 주지 범여스님의 격려사, 선운사 부주지 대원스님의 경과보고가 있었고 전통의식인 영가천도제가 봉행됐다.


김원우기자

사찰음식의 대중화 선언!

이어영의 새롭게 선보이는 358가지

자연 건강 사찰 음식

- 자연 건강 사찰음식 제12기생 모집 -



“이어영님은 30여년 동안 사찰음식을 연구하고 생활화를 위해 많은 활동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동안 노고와 정진에 대해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사찰음식을 통해 맑고 건강한 몸과 생활을 가꾸어 가기를 기원드리며 그 공덕으로 우리 사회와 자연이 똑같이 건강하기를 소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전 총무원장 正大

사찰음식의 특징은 어육류와 오신채를 사용하지 않고 채식을 위주로 하는데 있다. 이것은 생명존중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정신 수련의 승화된 경지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한다.

쌍계사 승가대학 학장 제월 통광

전권 값 38,000원

▶문의: 전화 (02)3210-3397 H P 018-236-8734

자연건강사찰음식 연구원

원장 이 여 영

불자의 긍지·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광고계재·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 지 사 명 | 활 동 지 역 | 지사장명 | 주 소 및 연 락 처 |
|---------|--------------|------|------------------------------|
| 부산지사 | 부산일원 | 김종렬 | 051)632-0064 / 011-219-5066 |
| 대구지사 | 대구일원 | 손문철 | 053)768-8008 / 016-813-8008 |
| 광주지사 | 광주일원 | 주용직 | 062)375-9986 / 016-602-7544 |
| 강릉지사 | 강릉일원 | 전유진 | 033)643-5599 / 018-236-5589 |
| 전북지사 | 전북일원 | 조기식 | 063)255-2274 / 011-9644-4579 |
| 경남 동부지사 | 밀양 / 창령 / 의령 | 해봉스님 | 055)353-1196 / 017-650-1196 |
| 영주지국 | 영주 / 문경 / 봉화 | 박영애 | 054)634-3429 / 011-9373-3778 |
| 충북지사 | 청주일원 | 일봉스님 | 043)258-3282 / 011-459-3282 |
| 대전지사 | 대전일원 | 류재희 | 042)489-9390 / 017-433-6523 |
| 경남 서부지사 | 마산 / 창원 / 김해 | 보성스님 | 055)547-3469 / 011-9557-4566 |
| 제천지국 | 제천 / 단양 | 청산스님 | 043)644-4366 / 011-485-4080 |